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에 따른 인지적 추론에 관한 연구

박성은 · 이미숙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The Study of Cognitive Inferences According to Style and Color of Clothing

Sung Eun Park · Mi Sook Lee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4. 3. 2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ategories and contents of the cognitive inferences of both men and women regarding the style and color of clothing. The study was conducted by survey method, using open-ended ques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20 male/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by the qualitative metho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gnitive inferences are formed from stereotypes that fall into six categories--appearance, personality, background, behavior, situation, and reaction. Second, there are some differentiations in these stereotypes depending on clothing style and color. Specifically, the amount of exposure represented in the clothing style is a salient features, one that shows situational attribution. Third, the strength of stereotype differs depending on the sex of perceivers: women indicate a stronger tendency to stereotype-based on clothing than do men. In conclusion, each of cognitive inferences occurs between wearer and the actual perceiver. Stereotypes are important determining factors for making cognitive inferences.

Key words: Cognitive inference, Stereotype, Clothing style, Color; 인지적 추론, 고정관념, 의복스타일, 색상

I. 서 론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인상형성이나 개인의 특성 추론에 의하여 상대의 특성을 자발적으로 추론하게 되는데(Uleman et al., 1996), 이와 같이 지각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 평가 및 추론 등 지각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인지(cognition)이다(조긍호, 1986). 이 과정에서 의복은 무언의 상징으로서 착용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지각자와 의복 착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복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의복의 스타일이나 색채는 눈에 띠는 형태(salient features)로서 의복

착용자를 재빨리 범주화(categorization)하도록 하는 테(Fiske, 1998), 이때 고정관념은 대상에 대한 인지 과정 중에서 하나의 도식(schema)으로 사용되며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범주화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Dijksterhuis and van Knippenberg, 1996; von Hippel et al., 1995). 따라서 사람들이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선입견이 의복 착용자의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편파적으로 지각하게 만들며, 그 결과 그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왜곡시키며, 또 그 행동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 판단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지적 과정 내에서 고정관념은 복잡한 정보 처리를 빠르고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대상에 대한 기존의 지식으로서, 이 기존의 틀에 의거하여 정보를 단순화시키므로 대상의 예측되는 행동에 대해 자동화된 사고들을 불러일으키며 빠르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해석을 돋게 되는 것이다(김혜숙, 1993/1999).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연구들이 인상형성 및 대인지각에 미치는 의복의 영향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 실제로 여러 선행 연구(김경원 외, 2004; 김윤경, 강경자, 2003; 고애란, 1990; 류숙희, 류지은, 2001; 박성은, 1996; 이명희, 1993/1999; 이명희, 강승희, 1998; 이주현, 1990; 이주현, 강혜원, 1995; 임남영, 강승희, 2003; 정명선, 김재숙, 2001; 정해선, 강경자, 2004; 조은영, 홍병숙, 1995)의 결과들은 의복의 시각적 특성이 지각자의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첫인상 형성은 동적 단서가 없을 때, 외모나 의복과 같은 정적 단서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며(김경원 외, 2004), 대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자기 표현도 적극적이므로, 과거 세대가 의복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특성을 가질 것이므로(한명숙, 2004)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각적 자극물을 제시한 후 미리 제시한 한정된 형용사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각자의 인지적 추론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적 과정 자체를 극히 제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복에 대한 인지적 연구는 다른 여러 각도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명되어야 할 필요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한 인지적 과정의 본질적인 측면을 규명하고자 의복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각자의 추론을 제한하지 않고, 나아가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위하여 연구 자료에 대하여 내용 분석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인지적 추론을 이끌어냄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고정관념은 하나 이상의 다양한 차원을 갖는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의복 고정관념의 특성과 그 범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즉 지각자들이 가장 인지하기 쉬운 특성인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되는 의복 고정관념은 어떠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하위범주로

구성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의복 고정관념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범주를 규명한다. 둘째, 의복 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규명한다. 셋째,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 및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의복 고정관념의 차이를 비교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고정관념

고정관념(stereotype)은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일치(coherence), 간소화(simplicity), 예언가능성(predictability) 등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Tajfel, 1981)으로, 이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예측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지적 추론 및 평가과정에서 고정관념을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휴리스틱(heuristic)으로 사용한다(Bodenhausen and Wyer, 1985).

이러한 고정관념은 선택적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만들며(Hamilton and Rose, 1980), 귀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외적,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해버리는 반면 일치 정보에 대해서는 내적, 기질적 귀인을 하게 한다(Crocker et al., 1983). 또한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일치 행위의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더 큰 처벌을 판정하게 된다(Bodenhausen and Lichtenstein, 1987; Bodenhausen and Wyer, 1985). 이러한 고정관념을 일으키는 범주화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사회 규범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범주화의 기초가 되는 특출한 속성들은 대부분 학습에 의한 규범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이는 사회적 전통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인 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을수록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지각하고 반응하기가 더 쉽다(홍대식, 1986).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이 도식(schema)이나 인상형성 및 대인판단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Bodenhausen and Lichtenstein, 1987; Bodenhausen and Wyer, 1985; Brewer and Kramer, 1985; Crocker et al., 1983). 이러한 일련의 인지적 과정들은 범주화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고

정관념적 특성들을 활성화하도록 하며(Wigboldus et al., 2003), 자발적이고 비의도적으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도록 한다(Asch, 1946). 따라서 고정관념은 부족한 정보만 가지고 상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주지만 그 대가로 고정되고 융통성 없는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강혜원, 1995).

2.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에 대한 고정관념

의복의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의복이 인상형성 및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함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외 인상 형성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의복의 디자인 요소는 칼라, 네크라인, 어깨폭, 소매형태, 스커트 길이와 폭, 색상 등이었다. 이는 이인자, 이경희와 신효정(2001)의 실험에서도 증명되고 있는데, 이들은 강의 시간에 들어온 학생의 첫인상을 체크하도록 한 실험 결과 의복에 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색채이고 그 다음이 스타일로 나타남으로써 의복의 색상과 스타일은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최수경과 강경자(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원피스 드레스의 색상과 톤 그리고 스커트 길이와 폭의 변화는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 노출 의복 스타일에 대해서는 정숙성 인상이나 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신체를 노출한 의복 스타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 노출이 많을수록 품위가 없고 선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조은영, 홍병숙, 1995; Cahoon and Edmonds, 1986; Edmonds and Cahoon, 1986). Mathes와 Kemphier(1976)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를 노출한 의복 품목과 스타일에 자유로운 성적 태도와 행동을 나타낸다고 믿고 있었으며, Paek(1986)의 연구에서는 스커트에 긴 트임이 있는 투피스와 가슴을 깊게 판 팬츠 수트 착용자는 드레시한 유형이나 캐주얼한 유형의 착용자의 비해 더 성숙하고 자신감 있으며 주도적이고 가장 매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긴 스커트에 비해 짧은 스커트는 짧고 외향적이며 긴 스커트는 세련되게 지각되었고, 복을 깊게 판 티셔츠 형태는 좀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성적

매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Gibbins and Coney, 1981). Abbey et al.(1987)의 연구에서도 노출이 적은 옷을 입은 여성은 성격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지각된 반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보다 관능적이며 유혹적이고 경박하며 자유분방한 성 태도에 사려가 얕고 불성실한 성격특성을 가진 것으로 지각되었다. 고애란(1990)은 다리 노출이 정숙성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신체 노출이 많은 수트 차림은 시선을 끌고 자함과 동시에 자기 과시 표현의 수단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이미 색채는 의복에 있어서 가장 큰 표현적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강혜원, 1995), 따라서 의복 색채의 범주는 인상형성시 중요한 영향을 주는 특질이 될 수 있다(김광경, 1991; 김재숙, 송경자, 2002; 이명희, 강승희, 1998; 이주현, 강혜원, 1995; 이주현, 조궁호, 1995; 정해선, 강경자, 2004). 김윤경, 강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복식의 미적 인식에서 가장 먼저 인식되는 색채는 가장 표현적인 요소로써 복식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복 색채는 첫인상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복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주현(1990)의 연구에서도 수트의 색채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김광경(1991)은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에서 감색 스커트가 분홍색 스커트보다 더 능력있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의복은 인지적인 추론을 이끌어내는 지각의 단서로서 고정관념적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의복 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범주를 규명한다.

연구문제 2 : 의복 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3 :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에 따른 의복 고정관념의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문제 4 :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의복 고정관념의 차이를 비교한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충남 대학교에 재학중인 420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에 편의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며,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수는 각각 210명이었고, 이는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자극물의 구성 및 조사과정

자극 변인으로는 의복 스타일로서 노출 정도와 색채를 사용하였는데, 의복 스타일은 노출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되었으며, 색채는 빨강, 파랑, 회색이 포함되었다. 노출 의복은 홀터 네크라인의 소매가 없는 짧은 스커트 형태의 원피스로 표현되었고, 비노출 의복은 라운드 네크라인의 긴 소매의 무릎 길이 스커트 형태의 원피스로 표현되었다. 자극물로는 각 자극 변인을 포함하는 6가지 스크립트를 구성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각적 요소를 배제한 스크립트가 선형연구들에서 주로 제시되어온 자극물에 비하여 의복을 착용한 인물효과 및 의복 자체의 세부적인 스타일 변인이나 다양한 색상의 톤 등으로 인한 인상형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나아가서 응답자의 활발한 지적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보다 광범위한 인지적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었

기 때문이다. 스크립트는 각 응답자는 한 가지 스크립트만 보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는 스크립트를 제시한 후 떠오르는 생각을 한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여 적도록 하고, 그 수는 5개로 제한하였으며, 시간 제한은 두지 않았다.

4. 분석 방법

응답자들의 자유 응답에 대하여 개별 카드를 작성하여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이를 선행 연구들의 요인 분석 결과와 두 연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6 가지 범주를 결정하였으며, 각각의 응답 카드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자의 동의하에 각 범주에 나눠 재배분하였다. 6가지 범주는 외모, 성격, 배경, 행동, 상황, 반응이었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응답 카드는 기타에 포함시켰다. 이중 외모 범주는 응답자가 스크립트를 읽고 이에 대하여 의복이나 신체에 관해 언급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성격 범주에는 의복 착용자의 성격에 관한 언급을 포함시켰으며, 배경 범주에는 의복 착용자의 나이, 직업, 결혼 여부, 국적 등의 주변 배경에 대한 추측을 포함하였다. 행동 범주는 스크립트 내 의복 착용자의 행동 예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상황 범주에는 스크립트 상의 의복 착용자가 처한 상황을 추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반응 범주에는 의복 착용자에 대한 평가 및 호감의 표현, 그리고 응답자와 의복 착용자간의 상호관계 추론 및 비교 등의 의복 착용자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에 관한 언급 내용이 포함되었다(표 1). 범주의

<표 1> 의복 고정관념 범주의 차원

차원	정의	하위 범주	내용 예
외모	의복 및 신체에 관한 추론 및 언급	의복 신체	- 유니폼같다. - 몸매가 좋다.
성격	의복 착용자의 성격에 관한 추론 및 언급		- 자신감있어 보인다. - 내성적인 성격이다.
배경	의복 착용자의 주변 배경에 관한 추론 및 언급 나이, 직업, 수입, 결혼여부, 가족환경, 친구관계 등		- 폐선업에 종사할 것이다. - 결혼한지 얼마 안 된 듯하다.
행동	의복 착용자의 행동 예측에 관한 추론 및 언급		- 춤을 잘 출 것이다. - 담배를 훑 것이다.
상황	의복 착용자가 처한 상황의 적절성, 상황의 묘사 및 특별한 착용 동기에 관한 추론 및 언급	상황적 적절성 상황의 묘사 착용동기	- 평소의 복장에 위배된다. -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 임산부인 것 같다.
반응	의복 착용자에 대한 평가와 호감 표현, 응답자와의 관계 및 본인과의 비교에 관한 추론 및 언급	평가 호감 관계	- 보기 좋다. - 이야기해보고 싶다. -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

구성과 내용에 대한 타당도는 의류 전공 대학원생 10명에게 평가하도록 하여 검증한 후 재검토하였다. 한편, 한 응답자의 응답 수가 다섯 개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를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범주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빈도를 계산하고, 각 범주의 빈도를 응답 총수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여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 변인 및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의복 고정관념에 대한 범주의 차원

의복 착용자에 대한 인지적 추론의 범주 차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한 결과, 전체 응답 중 성격 범주에 대한 언급(29.6%)이 가장 많았으며, 외모(22.9%), 반응(15.1%), 배경(6.6%), 상황(6.1%), 행동(0.8%)범주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대상에 대한 인지적 추론은 하나 이상의 여러 범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의복의 상징적 의미는 단지 시각적 반응과 해

석 뿐만 아니라 확대된 추론을 이끌어 내고 지각자의 평가 및 반응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의복이 단순한 시각적 자극물의 차원을 넘어 착용자와 지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중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수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출 의복은 비노출 의복에 비하여 배경, 행동, 상황 및 반응 범주에 관한 언급이 많았으며, 무응답의

<표 2> 의복 스타일에 따른 범주의 비교

변인	노출 (n=1050)	비노출 (n=1050)	합계 (n=2100)
외 모	243 (23.1)	238 (22.7)	481 (22.9)
성 격	314 (29.9)	308 (29.3)	622 (29.6)
배 경	90 (8.6)	49 (4.7)	139 (6.6)
행 동	14 (1.3)	3 (0.3)	17 (0.8)
상 황	82 (7.8)	47 (4.5)	129 (6.1)
반 응	233 (22.2)	83 (7.9)	316 (15.1)
기 타	2 (0.2)	20 (1.9)	22 (1.1)
무응답	72 (6.9)	302 (28.7)	374 (17.8)
합 계	1050 (100.0)	1050 (100.0)	2100 (100.0)

<표 3> 의복 스타일과 색채 및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범주의 비교

범주	변인	노 출				비 노 출				총계 (n=1050)
		빨강 (n=175)	파랑 (n=175)	회색 (n=175)	합계 (n=525)	빨강 (n=175)	파랑 (n=175)	회색 (n=175)	합계 (n=525)	
남자	외모	60(34.3)	42(24.0)	32(18.3)	134(25.5)	29(16.6)	51(29.1)	42(24.0)	122(23.2)	256(24.4)
	성격	49(28.0)	40(22.9)	50(28.6)	139(26.5)	20(11.4)	41(23.4)	37(21.1)	98(18.7)	237(22.6)
	배경	15(8.6)	18(10.3)	21(12.0)	54(10.3)	6(3.4)	12(6.9)	21(12.0)	39(7.4)	93(8.9)
	행동	2(1.1)	6(3.4)	5(2.8)	13(2.5)	1(0.6)	2(1.1)	0(0.0)	3(0.6)	16(1.5)
	상황	13(7.4)	9(5.1)	14(8.0)	36(6.8)	6(3.4)	8(4.6)	18(10.3)	32(6.1)	68(6.5)
	반응	30(17.1)	35(20.0)	34(19.4)	99(18.9)	24(13.7)	14(8.0)	21(12.0)	59(11.2)	158(15.0)
	기타	1(0.6)	1(0.6)	0(0.0)	2(0.4)	3(1.7)	8(4.6)	9(5.2)	20(3.8)	22(2.1)
	무응답	5(2.9)	24(13.7)	19(10.9)	48(9.1)	86(49.2)	39(22.3)	27(15.4)	152(29.0)	200(19.0)
여자	총계	175(100.0)	175(100.0)	175(100.0)	525(100.0)	175(100.0)	175(100.0)	175(100.0)	525(100.0)	1050(100.0)
	외모	36(20.6)	36(20.6)	37(21.1)	109(20.7)	52(29.7)	46(26.3)	18(10.3)	116(22.1)	225(21.4)
	성격	54(30.9)	54(30.9)	67(38.3)	175(33.3)	68(38.9)	59(33.7)	83(47.4)	210(40.0)	385(36.7)
	배경	16(9.1)	12(6.8)	8(4.6)	36(6.8)	1(0.6)	4(2.3)	5(2.8)	10(1.9)	46(4.4)
	행동	0(0.0)	0(0.0)	1(0.6)	1(0.5)	0(0.0)	0(0.0)	0(0.0)	0(0.0)	1(0.1)
	상황	18(10.3)	20(11.4)	8(4.6)	46(8.7)	5(2.8)	3(1.7)	7(4.0)	15(2.8)	61(5.8)
	반응	40(22.8)	43(24.6)	51(29.1)	134(25.5)	7(4.0)	5(2.9)	12(6.9)	24(4.6)	158(15.0)
	무응답	11(6.3)	10(5.7)	3(1.7)	24(4.5)	42(24.0)	58(33.1)	50(28.6)	150(28.6)	174(16.6)
	총계	175(100.0)	175(100.0)	175(100.0)	525(100.0)	175(100.0)	175(100.0)	175(100.0)	525(100.0)	1050(100.0)

빈도는 비노출 의복이 노출 의복에 비하여 월등히 많아 노출 의복이 비노출 의복에 비하여 더 많은 것을 추론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노출 의복이 비노출 의복에 비하여 더욱 두드러진 단서 (salient features)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기대되지 않은 행동은 지각자로 하여금 더 많은 사고와 추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노출 의복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서 지각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므로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표 2). 반면 색채 변인에 따라서는 범주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색채보다는 의복의 노출 정도가 더 두드러진 단서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의 색은 의복의 유형보다는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설명한 강혜원(1995)의 해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남자 응답자의 경우 외모 범주에 관한 언급(24.4%)이 성격 범주에 관한 언급(22.6%)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반응(15.0%), 배경(8.9%), 상황(6.5%), 행동 범주(1.5%)의 순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출 의복은 비노출 의복에 비하여 성격, 행동, 반응 범주에서 더 많은 언급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응답자들이 이성의 외모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고정관념적 이상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성격 범주에 관한 언급(36.7%)이 외모 범주에 관한 언급(21.4%)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반응(15.0%), 상황(5.8%), 배경(4.4%) 순으로 언급되었고, 의복 착용자의 행동 예측에 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0.1%). 또한 노출 의복은 비노출 의복에 비하여 배경, 상황, 반응 범주에서 두드러지게 많은 추론을 이끌어내고 있었다(표 3).

2. 의복 고정관념에 대한 범주의 내용

각 범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외모 범주는 다시 의복 범주와 신체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의복 범주에는 의복의 형태 및 스타일, 가격 및 브랜드, 화장, 액세서리, 어울림 등에 관한 추론 및 언급이 포함되었고, 신체 범주에는 얼굴, 머리형태, 키, 몸매 등에 관한 추론 및 언급이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비노출 의복은 노출 의복에 비하여 신체에 관한 추론 및 언급이 많이 나타났으며 빨강색 의복의 경우 특히 외모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외모 범주 중에서는 의복의 형태 및 스타일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는 일상 생활에서 대상으로서 사람을 지각할 때 의복은 가장 눈에 띠는 단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출 의복의 경우 섹시하고 눈에 띠며 세련된 스타일일 뿐만 아니라 화장과 진한 향수를 사용할 것이며 몸매가 아름다우며, 키가 크고 날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었으며, 비노출 의복에 대해서는 유행에 뒤떨어진 스타일이며, 날씬한 몸매에 키가 크고 생머리 스타일일 것이라는 추론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신체를 노출한 의복 스타일이 자유로운 성적 태도와 행동을 연관시킨 Mathes 와 Kemphher(1976)와 Abbey et al.(1987) 및 고애란(1990)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색채에 대해서는 빨강색은 섹시한 스타일이라는 언급이 압도적이었으며, 파랑색 의복은 다소 섹시하지만 유행에 뒤떨어진 스타일이고, 회색 의복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표 4).

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노출 형태의 빨강색 의복에서 의복 범주에 관한 언급(28.57%)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에 비하여 화장 및 안경, 귀걸이, 신발 등 세부적인 액세서리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신체 범주에 있어서도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에 비하여 얼굴, 머리 형태, 키에 관

<표 4> 의복 스타일과 색채에 따른 외모 범주의 비교

범주	변인 빈도(%)	스타일			색상		
		노출 (n=1050)	비노출 (n=1050)	합계 (n=2100)	빨강 (n=700)	파랑 (n=700)	회색 (n=700)
의복	194(18.5)	160(15.3)	354(16.9)	140(20.0)	130(18.6)	84(12.0)	354(16.9)
신체	49(4.6)	78(7.4)	127(6.0)	37(5.3)	45(6.4)	45(6.4)	127(6.0)
합계	243(23.1)	238(22.67)	481(22.9)	177(25.3)	175(25.00)	129(18.4)	481(22.9)

<표 5> 의복 스타일과 색채 및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외모 범주의 비교

범주	변인 빈도(%)	비 노출				노출				총계 (n=1050)
		빨강 (n=175)	파랑 (n=175)	회색 (n=175)	합계 (n=525)	빨강 (n=175)	파랑 (n=175)	회색 (n=175)	합계 (n=525)	
남자	의복	55(31.4)	30(17.1)	23(13.1)	108(20.6)	20(11.4)	37(21.1)	24(13.7)	81(15.4)	189(18.0)
	신체	5(2.9)	12(6.9)	9(5.1)	26(4.9)	9(5.1)	14(8.00)	18(10.3)	41(7.8)	67(6.4)
	합계	60(34.3)	42(24.0)	32(18.2)	134(25.5)	29(16.57)	51(29.1)	42(24.0)	122(23.2)	256(24.4)
여자	의복	31(17.7)	28(16.0)	27(15.4)	86(16.4)	20(11.4)	16(9.1)	6(3.4)	42(8.0)	72(6.8)
	신체	5(2.9)	8(4.6)	10(5.7)	23(4.4)	18(10.3)	11(6.3)	8(4.6)	37(7.0)	60(5.7)
	합계	36(20.6)	36(20.6)	37(21.1)	109(20.8)	52(29.7)	46(26.3)	18(10.3)	116(22.1)	225(21.4)

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남성 응답자는 자극물을 이성으로서 지각하고 있으며, 여성을 지각할 때 외연적 특성을 중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지각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도 역시 빨강색 의복에서 의복 범주에 관한 언급이 많았으며, 또한 빨강색 비노출 의복에서 신체범주에 관한 언급(10.28 %)이 많이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액세서리에 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성 응답자에 비하여 신체 범주 중 몸매에 관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여성들의 몸매에 대한 관심과 이상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5). 또한 남성 응답자는 “섹시한”이라는 응답이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서 이성에 대한 의복 고정관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노출 형태의 빨강색 의복에 대해서는 35명의 응답자 중 32명이 섹시하다고 언급하여 노출 형태의 의복 및 빨강색 의복은 섹시하다는 고정관념의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모든 의복을 비교적 섹시하다고 평가한다고 한 Delong et al.(1983)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며, 문화에 관계없이 남성은 여성적인 의복을 선호하고 성적인 이미지를 기대한다고 한 이명희(1993)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노출 형태의 빨강색 의복이 섹시하다고 언급한 사람은 35명 중 16명이었으며, 이외에 “눈에 띠는 스타일” 또는 “유행에 뒤떨어진 스타일” 임을 언급하는 빈도가 남성에 비하여 많았다. 따라서 이는 남성과 여성의 의복 고정관념의 형성은 동기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격 범주는 의복 착용자에 대한 인지적 추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이며, 여성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에 비하여 이 범주에 관하여 더 많이 추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복의 노출 정도나 색채에 따라서 언급된 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급된 형용사의 내용은 의복의 노출 정도나 색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노출 의복에서는 “자신감있는”, “대담한”이 언급된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외 “정숙하지 않은”, “개성있는”, “자유분방한”, “활발한”, “남의 시선을 즐기는” 등의 형용사가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비노출 의복에서는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형용사는 없었으며, “단정한”, “여성스러운”, “차분한”, “내성적인”, “청순한”, “수수한” 등의 형용사가 언급되었다. 이는 의복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확실한 고정관념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대상을 지각할 때 두드러진 단서를 더 잘 기억하고 그러한 단서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에 중심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비노출 형태의 의복보다는 노출 형태의 의복이 두드러진 단서로서 지각되고 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색체 변인에 따라서는 빨강색 의복에서 파랑색 의복이나 회색 의복에 비하여 다소 형용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빨강색은 다른 의복 색채에 비하여 더 많이 고정관념화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빨강색 의복은 비노출 형태에서도 “개성있는”, “남의 시선을 즐기는”, “자신감있는” 등의 형용사의 언급빈도가 높아 고정관념의 내용이 노출 의복과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회색 의복에 있어서는 다른 의복에서는 볼 수 없는 “지적인”, “우울한” 등의 형용사가 언급되어 회색 자체에 대하여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표출되는 형용사의 내용은 비슷하였으나 빈도의 차이가 나타나서

고정관념 형성의 정도 차이를 표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녀간에 인지적 구조 내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

념의 내용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남성 응답자의 경우 비노출 의복에 있어서는 어느

<표 6> 의복스타일과 색채 및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성격 범주의 내용

구분	노 출												
	빨 강				파 랑				회 색				
순위	형용사	빈도	% ^a (n=49)	% ^b (n=35)	형용사	빈도	% ^a (n=40)	% ^b (n=35)	형용사	빈도	% ^a (n=50)	% ^b (n=35)	
남자	1 자신감있는	11	22	31	자신감있는	14	35	40	자신감있는	10	20	28	
	2 정숙하지 않은	7	14	20	대답한	7	17	20	정숙하지 않은	7	14	20	
	3 개성있는	6	12	17	개성있는	2	5	6	대답한	7	14	20	
	4 활발한	4	8	11	남의 시선을 즐기는	2	5	6	개성있는	6	12	17	
	5 자유분방한	4	8	11	명청한	2	5	6	남의 시선을 즐기는	4	8	11	
합계		32	64	-	계	27	67	-	계	34	68	-	
여자	순위	형용사	빈도	% ^a (n=54)	% ^b (n=35)	형용사	빈도	% ^a (n=54)	% ^b (n=35)	형용사	빈도	% ^a (n=67)	% ^b (n=35)
	1	대답한	23	43	66	자신감있는	17	31	48	자신감있는	20	30	57
	2	자신감있는	11	20	31	대답한	16	30	46	대답한	15	22	43
	3	정숙하지 않은	11	20	31	자유분방한	7	13	20	남의 시선을 즐기는	7	10	20
	4	남의 시선을 즐기는	4	7	11	정숙하지 않은	5	9	14	정숙하지 않은	7	10.	20
합계		52	95	-	계	48	88	-	계	53	78	-	

구분	비 노 출												
	빨 강				파 랑				회 색				
순위	형용사	빈도	% ^a (n=20)	% ^b (n=35)	형용사	빈도	% ^a (n=41)	% ^b (n=35)	형용사	빈도	% ^a (n=37)	% ^b (n=35)	
남자	1 단정한	4	20	11	자신감있는	3	7	8	내성적인	4	11	11	
	2 개성있는	3	15	8	수수한	3	7	8	단정한	3	8.	8	
	3 대답한	2	10	5	여성스러운	3	7	8	청순한	3	8	8	
	4 남의 시선을 즐기는	2	10	5	차분한	3	7	8	여성스러운	2	5	6	
	5 착한	2	10	5	청순한	2	5	6	지적인	2	5	6	
합계		13	65	-	계	14	33	-	계	14	37	-	
여자	순위	형용사	빈도	% ^a (n=68)	% ^b (n=35)	형용사	빈도	% ^a (n=59)	% ^b (n=35)	형용사	빈도	% ^a (n=83)	% ^b (n=35)
	1	개성있는	12	17	34	개성있는	12	20	34	단정한	17	20	48
	2	남의 시선을 즐기는	11	16	31	평범한	5	8	14	얌전한	11	13	31
	3	자신감있는	9	13.	26	남의 시선을 즐기는	4	7	11	여성스러운	10	12	28
	4	자유분방한	4	6	11	단정한	4	7	11	지적인	4	5	11
합계		39	56	-	계	29	49	-	계	46	55	-	

^a(해당 형용사의 언급빈도)/(해당 셀의 전체형용사 언급빈도)

^b(해당 형용사를 언급한 응답자수)/(해당 셀의 전체 응답자수)

한 형용사에 수가 집중되지 않아서 특별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 응답자는 남성에 비하여 노출 의복 뿐만 아니라 비노출 의복에서도 동일한 형용사가 반복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아 동성에 대한 의복 착용 경험과 지식으로 인하여 보다 강하게 형성된 고정관념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표 6).

배경 범주의 경우 의복 착용자의 이름, 나이, 결혼 여부, 가족 환경, 수입, 직업, 교육 수준, 이성 관계, 국적 및 자동차 소유 여부까지도 확장하여 추론해낼 수 알 수 있었다. 이는 의복은 착용자 자신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확장된 추론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때 적절한 의복이 효율적인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 Workman과 Johnson(198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배경 범주에서는 직업에 관한 추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노출 의복의 경우 비노출 의복의 경우에 비하여 직업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적, 상황적 귀인을 하려고 한다는 Crocker et al.(1983)의 결과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노출 의복은 노출 의복에 비하여 나이 들어 보이고 결혼한 사람일 것이라는 추론이 많았다. 또한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에 비하여 이러한 배경 범주에 관한 추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범주의 경우 대부분 남성 응답자에게서 언급되고 있으며, 여성 응답자에게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에도 행동 범주에 대한 추론은 대부분 노출 의복에 대해서 형성되고 있었는데, 노출 의복을 입은 여성은 춤을 잘 출 것이고, 사치가 심할 것이며 봄매 관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는 노출된 형태의 의복이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여 차별적인 주의를 받아 부호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강한 극단적 평가가 이루어

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 범주의 경우 상황의 적절성, 상황의 묘사 및 착용 동기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었는데, 노출 의복의 경우 비노출 의복에 비하여 상황의 적절성과 착용 동기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 이것도 역시 Crocker et al.(1983)의 연구에서와 같이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적, 상황적 귀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지각자들은 고정관념에 불일치하는 행동에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해 더 깊게 숙고해 보고 그러한 행동은 보다 외적으로 귀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색채 변인에 있어서는 특히 빨강색 의복이 다른 의복에 비하여 상황의 묘사에 관한 언급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지각자의 성별로 살펴 보면, 남자 응답자에게서는 착용 동기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여성 응답자는 임신 등 특수한 착용 동기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응답자가 동성의 의복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과 착용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으로 발달된 고정관념 체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에 비하여 비노출 의복에 대하여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반응 범주는 평가, 호감, 관계의 하위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 중 평가 범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평가 차원이 인지적 추론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 및 호감, 관계 범주 모두에서 노출 의복이 비노출 의복에 비하여 언급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출 의복은 비노출 의복에 비하여 평가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표 9). 색채 변인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호감 표현에 있어서는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 보다 언급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도 노출 의복은 비노출 의복에 비하

<표 7>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에 따른 상황 범주의 비교

범주 변인 빈도(%)	스타일			색상			
	노출 (n=1050)	비노출 (n=1050)	합계 (n=2100)	빨강 (n=700)	파랑 (n=700)	회색 (n=700)	합계 (n=2100)
상황의 적절성	42(4.0)	8(0.8)	50(2.4)	15(2.1)	18(2.6)	22(3.1)	50(2.4)
상황의 묘사	32(3.0)	38(3.6)	70(3.3)	30(4.3)	18(2.6)	22(3.1)	70(3.3)
착용 동기	8(0.8)	1(0.1)	9(0.4)	2(0.3)	4(0.6)	3(0.4)	9(0.4)
합계	82(7.8)	47(4.5)	129(6.1)	42(6.0)	40(5.8)	47(6.6)	129(6.1)

<표 8> 의복 스타일과 색채 및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상황 범주의 비교

범주	변인 빈도 (%)	노출				비 노출				
		빨강 (n=175)	파랑 (n=175)	회색 (n=175)	합계 (n=525)	빨강 (n=175)	파랑 (n=175)	회색 (n=175)	합계 (n=525)	총계 (n=1050)
남 자	상황의 적절성	5(2.8)	6(3.4)	9(5.1)	20(3.8)	0(0.0)	1(0.6)	6(3.4)	7(1.3)	27(2.6)
	상황의 묘사	8(4.6)	3(1.7)	5(2.9)	16(3.1)	6(3.4)	7(4.0)	12(6.9)	25(4.8)	41(3.9)
	합 계	13(7.4)	9(5.1)	14(8.0)	36(6.9)	6(3.4)	8(4.6)	18(10.3)	32(6.1)	68(6.5)
여 자	상황의 적절성	5(2.9)	11(6.3)	6(3.4)	22(4.2)	0(0.0)	0(0.0)	1(0.6)	1(0.6)	23(2.29)
	상황의 묘사	11(6.3)	5(2.8)	0(0.00)	16(3.0)	5(2.8)	3(1.7)	5(2.8)	13(2.5)	29(2.7)
	착용 동기	2(1.1)	4(2.3)	2(1.1)	8(1.5)	0(0.0)	0(0.0)	1(0.6)	1(0.2)	9(0.9)
	합 계	18(10.3)	20(11.4)	8(4.5)	46(8.7)	5(2.8)	3(1.7)	7(4.00)	15(2.8)	61(5.8)

<표 9> 의복 스타일에 따른 반응 범주의 비교

범주	변인 빈도(%)	노출 (n=1050)		비노출 (n=1050)	합계 (n=2100)
		노출 (n=1050)	비노출 (n=1050)		
	평 가	128(12.2)	44(4.2)	172(8.2)	
	호 감	38(3.6)	25(2.4)	63(3.0)	
	관 계	67(6.4)	14(1.3)	81(3.9)	
	합 계	233(22.2)	83(7.9)	316(15.1)	

여 호감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에 비하여 노출 의복차림을 자신에게 투영하거나 자신과 비교해보는 등 관계 범주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비노출 의복에 있어서는 평가 및 호감에 관한 추론의 수가 훨씬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또한 그 내용별로 분석해 볼 때 남성 응답자는 노출 의복(f=30)에 있어서 비노출 의복(f=8)에 비하여 부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이는 두드러진 외모 단서가 사회적 인상을 형성하는 상황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Lennon과 Miller(1984-1985)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노출 의복은 비노출 의복에 비하여 호감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표현(f=4)보다는 “이야기해 보고 싶다” 등의 관심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표현(f=48)이 많았고 그 중 빨간색 의복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호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남성들의 성적 이미지 선호와 관련되는 것이며, 이성의 의복이나 외모에 대해서 보다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성은(199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비노출 의복(f=18)에 비하여 노출 의복(f=61)에 대해서 평가의 언급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노출 의복에 대한 부정적 평가 언급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f=52). 또한 여성 응답자의 호감에 대한 언급의 수는 남성 응답자에 비하여 훨씬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f=6). 또한 관계 범주에 있어서는 비노출 의복 보다는 노출 의복에 대하여 대상과 자신을 비교해 볼

<표 10>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 및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반응 범주의 비교

범주	변인 빈도(%)	노출				비 노출				총계 (n=1050)
		빨강 (n=175)	파랑 (n=175)	회색 (n=175)	합계 (n=525)	빨강 (n=175)	파랑 (n=175)	회색 (n=175)	합계 (n=525)	
남 자	평 가	18(10.3)	18(10.2)	20(11.4)	56(10.6)	9(5.1)	6(3.4)	10(5.7)	25(4.8)	81(7.7)
	호 감	9(5.1)	11(6.2)	9(5.1)	29(5.5)	11(6.3)	4(2.3)	9(5.1)	24(4.6)	53(5.0)
	관 계	3(1.7)	6(3.4)	5(2.8)	14(2.6)	4(2.3)	4(2.3)	2(1.1)	10(5.7)	24(2.3)
	합 계	30(17.1)	35(20.0)	34(19.4)	99(18.8)	24(13.7)	14(8.0)	21(12.0)	59(11.2)	158(15.0)
여 자	평 가	21(12.00)	25(14.3)	26(14.8)	72(13.7)	7(4.0)	3(1.7)	9(5.1)	19(3.6)	91(8.6)
	호 감	4(2.3)	1(0.6)	4(2.3)	9(1.7)	0(0.0)	0(0.0)	1(0.6)	1(0.2)	10(1.00)
	관 계	15(8.5)	17(9.7)	21(12.0)	53(10.1)	0(0.0)	2(1.1)	2(1.1)	4(0.8)	57(5.4)
	합 계	40(22.8)	43(24.6)	51(29.1)	134(25.5)	7(4.0)	5(2.8)	12(6.8)	24(4.6)	158(15.0)

때 “착용해보고 싶다” 등의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44$).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에 대한 인지적 추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에 가지고 있는 의복 고정관념의 특성 및 특성의 범주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스크립트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단어를 분류한 후 이 결과를 내용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의복의 스타일과 색채에 대한 인지적 추론에서 도출되는 의복 고정관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의 인지적 추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은 외모, 성격, 배경, 행동, 상황, 반응의 6범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중 성격 범주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각자는 외모 및 성격 등 대상 자체에 의한 추론 뿐만 아니라 의복 착용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및 처해있는 상황, 그리고 예기되는 행동까지도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었으며 이는 의복 착용자에 대한 평가나 호감의 표현 및 본인과의 관계 추론 및 비교 등의 지각자의 반응까지도 이끌어 냄으로써 고정관념에 의한 인지적 추론 과정은 양방향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복이 확실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노출 의복 착용자는 비노출 의복 착용자에 비하여 섹시하고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 것이며, 특정 상황에 의해 착용되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는 두드러진 단서로서 상황적 귀인으로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셋째,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세부적 액세서리 및 신체형태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의복 착용자의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적 추론이 많았다. 또한 성격 범주에 있어서는 남성 응답자에 비하여 여성 응답자가 더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성은 호감 표현에 대한 언급이 많은 반면, 여성은 본인에 대한 투영 및 비교에 관한 언급이 많아 의복 고정관념의 형성은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고정관념의 범주는 하나 이상의 다차원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인지적 추론의 전 과정에 바탕이 되므로 의복이 가지는 고정관념의 다차원적 범주와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의복의 노출 형태와 같은 두드러진 단서는 더 깊은 주의와 생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인지적 추론의 과정에 있어서 정보 가치가 더 높으며, 따라서 이는 인상관리 차원에서 보다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의복 고정관념의 범주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각자의 집단을 다양화하여 의복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화와 미디어의 효과 및 사회적 이상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의복 변인을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의복 변인과 다양한 연령 및 문화 집단으로 확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오랜 기간에 걸친 동일한 절차에 의한 연구의 반복으로 고정관념의 변화와 왜곡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도출을 위한 새로운 연구 방법의 제시 및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의 병행이 의복 고정관념에 의한 인지적 추론의 과정과 영향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고애란. (1990). *Suit의 신체 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경원, 탁혜령, 고애란. (2004). 의복 스타일에 따른 인상 형성의 순서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7), 995-1006.
- 김광경. (1991). 남성적 여성적 의복이 직장 여성의 직업 특성과 직업 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 스타일과 색상, 톤조함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 395-406.
- 김재숙, 송경자. (2002). 체형 및 의복색이 남자 아동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29-37.
- 김혜숙. (1993). 지역 고정관념이 귀인 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53-70.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 류숙희, 류지은. (2001). 여성의 의복 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각자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4), 639-650.
- 박성은. (1996). 여대생의 외모가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30, 27-49.

- 이명희. (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 선호
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367-379.
- 이명희. (1999).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43, 187-202.
-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이주현. (1990). 의복 단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 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2보): Dress 및 Pants, Blouse의 형
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984-994.
- 이주현, 조궁호. (1995). 의상 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
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
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340-351.
- 정명선, 김재숙. (2001). 얼굴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특질
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2), 131-146.
- 정해선, 강경자. (2004).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 유형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2(3), 354-368.
- 조궁호. (1986).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 연구*, 8,
197-223.
- 조은영, 홍병숙. (1995). 이성의 신체 노출 의상에 대한 인지
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9(5), 723-737.
-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 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 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
구*, 11(4), 459-473.
- 한명숙. (2004). 직업역할에 따른 의복의 고정관념 연구-선생
님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5), 615-625.
- 홍대식. (1986).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 Abbey, A., Gozzarelli, C., McLaughlin, K. & Harnish, R.
(1987). The effects of clothing and sex composition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108-126.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odenhausen, G. V. & Lichtenstein, M. (1987). Social stereo
types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The impact
of task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871-880.
- Bodenhausen, G. V. & Wyer, R. S. (1985). Effects of stereo
types o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267-282.
- Brewer, R. & Kramer, K. S. (1985). The psychology of inter
group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219-243.
- Cahoon, D. D. & Edmonds, E. M. (1986). Estimates of oppo
site-sex first impressions related to females clothing
styl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5, 406.
- Crocker, J., Hannah, D. B. & Weber, R. (1983). Person mem
ory and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5-66.
- Delong, K. R., Salusso-Deonier, C. & Larnts, K. (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
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327-
336.
- Dij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 (1996). The knife
that cuts both ways: Facilitated and inhibited access to
inconsistent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383-390.
- Edmonds, E. M. & Cahoon, D. D. (1986). Attitudes concern
ing crimes related to clothing worn by female victim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4, 444-446.
- Fiske, S. T. (199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igboldus, D. H. J., Diksterhuis, A., and van Knippen
berg, A. (2003). When stereotypes get in the way: Ste
reotypes obstruct stereotype-inconsistent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470-484.
- Gibbins, K. & Coney, J. R. (1981). Meanings of physical
dimensions of women's cloth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720-722.
- Hamilton, D. L. & Rose, T. (1980). Illusory correlation and
the maintenance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
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5-17.
- Lennon, S. J. & Miller, F. G. (1984-1985). Attire, physical
appearance, and first impressions: More is l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1), 22-27.
- Mathes, E. W. & Kempher, S. B. (1976). Clothing as a non
verbal communicator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3, 495-498.
-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
nal*, 59(1), 10-16.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 Bodenhausen, G. V., and Lichtenstein, M. (1987).
Social stereotypes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The impact of task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871-880.
- Uleman, J. S., Newman, L. S. & Moskowitz, G. B. (1996).
People as flexible interpreters: Evidence and issues from
spontaneous trait inference, In Wigboldus, D. H. J., Dik
sterhuis, A. and van Knippenberg, A. (2003). When ste
reotypes get in the way: Stereotypes obstruct stereotype
inconsistent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84(3), 470–484.
- von Hippel, W., Sekaquaptewa, D. & Vargas, P. (1995). On the role of encoding processes in stereotype maintenance in *wigboldus, D. H. J., Di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 (2003). When stereotypes get in the way: Stereotypes obstruct stereotype-inconsistent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470–484.
- Workman, J. E. & Johnson, K. P. (1989). The role of clothing in extended inferenc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2), 164–169.